

女大生の 性役割 正體感과 化粧 行動에 關한 研究

具滋明* · 李龜榮

案山工科大学 뷰티디자인과 講師*, 案山工科大学 뷰티디자인과 專任講師

A Study on Sex Role Identity and Makeup Behavior

Kuh, Ja-Myung* and Lee, Kwuy-Young

Lecturer, Dept. of Beauty Design, Ansan Technical College*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Ansan Technical College

Abstract

This objective study were to classify the contents of makeup behavio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keup behavior and sex role identity, and to examine how the makeup behavior, makeup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sex role identity and demographic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ers surveyed 162 women for the ages of 18 through 25.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followed. 1) Four factor of makeup behavior were sexual attractiveness, aesthetic, psychological dependence and makeup interest. 2)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keup behavior and sex role identity. 3) Sexual attractiveness were influenced by femininity, incom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2 variables were 8.5%. Aesthetic were influenced by masculinity.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1 variable was 9.2%. Psychological dependence were influenced by femininity.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1 variable was 8.2%. Makeup interest were influenced by masculinity, ag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2 variables were 9.0%. 4 Makeup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by sexual attractiveness, aesthetic.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2 variables were 22.1%.

Key words: makeup behavior(화장행동), makeup satisfaction(화장만족), sex role identity(성역할 정체감)

I. 서론

성역할은 많은 사회적 역할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가장 일찍 학습되어지는 것으로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물학적 성(sex)에 적당한 성역할을 습득하고 이행함으로써 형성된다. 대개 남성은 성취지향적이고 직업활동에서 지도적 위치와 역할에 적합한 특성들로 특징지워지며, 여성은 집안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돌보는데 적합한 특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¹⁾,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와 가사노동의 감소, 남녀평등 사상 등으로 성역할 차이가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미용에도 나타나는데 머리 형태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짧은 머리스타일을, 남성들은 웨이브 스타일의 긴머리나 보브형태의 머리형태를 많이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화장에서는 여성취향적인 스타일보다는 자신의 성을 넘는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다²⁾. 화장품 사용범위도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은 오랫동안 여성의 전유물로서 여성의 성역할을 인식하는데 뚜렷한 대상이 되어왔으며 성인 여성의 화장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역할로 규정된 행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화장품 사용은 여성다움과 긍정적인 상호관련이 있어 화장품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화장에 관한 연구는 화장품의 사용³⁾⁴⁾⁵⁾⁶⁾⁷⁾, 화장의 유무⁸⁾⁹⁾¹⁰⁾¹¹⁾¹²⁾, 화장의 정도¹³⁾¹⁴⁾¹⁵⁾¹⁶⁾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 습관 및 화장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화장행동과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화장행동과 성역할 정체감 변인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화장행동이 가능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인 청년 후기에 속하는 여대생에 대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고,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행동이 화장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화장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화장에 대한 연구분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정체감

성(sex) 또는 성별(gender)은 염색체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며 태어날 때부터 남녀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유형화는 출생과 동시에 주위환경에 의하여 시작되며 그들이 갖는 성역할은 개인의 외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각각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행동, 의견, 감정 속에서 성장하며, 성유형화 과정을 통해 일정한 성역할을 얻게 된

다. 이러한 성역할 관념은 어린이들에게 일찍 발달되며, 한번 얻은 성역할의 형태는 일생동안 지속된다.

성역할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권 안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여러 특질이며¹⁷⁾, 한 사회집단에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남녀 각 구성원에게 동일시되는 행동형태이다¹⁸⁾.

성역할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차에 의해 심리적인 성차도 양분화 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행동, 능력, 성격은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여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일탈행위라고 까지 생각하였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사회성원 사이에 고도로 합의된 규범과 믿음이 존재하는데 남성성은 공격적, 독립적, 객관적, 지배적, 경쟁적, 논리적, 모험적, 자기확신적, 야심적, 통속적, 분석적, 성공적, 주장적, 수학과 과학에 능한 특성들을 지니며 여성성은 정서적, 표현적, 감정 이입적, 안전지향적, 양호적, 협동적, 의존적, 동정적, 헌신적, 직관적, 가정중심적, 관능적, 부드러운, 재치있는, 조용한, 상냥한, 예술과 문화에 능한 특성을 지닌 각 성의 전통적인 역할과 전형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이다¹⁹⁾.

한편 남성과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을 1970년대 연구결과와 1990년대 연구 결과를 비교한 Harris(1994)²⁰⁾와 Auster와 Ohm(2000)²¹⁾은 남성과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은 과거와 동일하게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성적인 특질은 과거보다 높아지고 여성적인 특질은 낮아졌으며,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질로는 여성적 특질보다 남성적 특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였다²¹⁾.

성역할은 한 개인에게 그 성에 적절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반대 성의 특질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극 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혹은 모두 낮은 것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¹⁾²²⁾²³⁾. 즉 한 개인 내에 있어 남성성, 여성성의 양성 특질의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성

역할 결과를 심리적 양성성이라 부르면서 이는 전통적 성역할 특성에 대한 도전적인 것으로 양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성역할로서 제안하였다.

심리적 양성성이란 행동에 융통성이 있고 남성적 과업이나 여성적 과업 모두에서 성취도가 높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수단적이면서도 표현적일 수 있고 지배적이면서도 양보적일 수 있으며 경쟁적이면서도 지지적일 수 있는 인간형이라는 것이다. 즉 양성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성의 적절한 행동에 자신을 맞추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상황에 효과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거나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열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성화된 여성은 민감하고 온화하면서도 강하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²⁾.

양성성 정체감을 지닌 사람이 다른 정체감 유형의 사람보다 더 능력있고 성취지향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하였고¹⁾²³⁾, 도덕성이 발달하고¹⁷⁾, 자존감이 높다고 하였다²⁴⁾.

양성적 유형과 남성적 유형의 사람은 자아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을 유용하고 가치있게 쓰며, 현재에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동기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의해 민감하며 감정표현에 있어서 자발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을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기대나 의무감없이 의미있고 친근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²⁵⁾.

이상에서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안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로 특징지워지는 일련의 특성들로 특정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대를 말한다. 종래에는 남자는 남성적인 것, 여성은 여성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최근에도 여전히 남성적, 여성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존재함과 더불어 사회변화에 따라 특히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보다 많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황의 요구에 따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

는 양성성을 지닌 사람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2 화장 행동

화장은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되는 미적 가치 추구 행위의 의미로 널리 통용된다²⁶⁾. 화장행동은 이러한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태도, 관심, 습관 및 화장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화장에 관한 연구는 화장품의 사용³⁾⁴⁾⁵⁾⁶⁾⁷⁾, 화장의 유무⁸⁾⁹⁾¹⁰⁾¹¹⁾¹²⁾, 화장의 정도¹³⁾¹⁴⁾¹⁵⁾¹⁶⁾를 중심으로 신체적 매력, 얼굴만족도, 성격, 자아의식, 여성성 및 인상형성을 연구하였다.

1) 화장품의 사용(량)

Cox와 Glick(1986)³⁾은 화장품 사용과 여성 직업평가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 사용이 비서직을 지원한 여성들의 예상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회계직을 지원한 여성들의 예상 직업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사용은 매력과 여성다움, 성적 매력과 긍정적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은 전형적인 여성적 직업과 관련이 있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Miller와 Cox(1982)⁴⁾는 화장품 사용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조사했다. 공적 자아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공적 자아의식이 낮은 여성보다 좀더 매력적이고 좀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화장품이 자신의 외모를 좀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공적 자아의식이 낮은 사람들보다 좀더 원만하게 이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Cash, Dawson, Davis, Bowen과 Galumbeck(1989)⁵⁾는 화장품을 사용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 매력 판단에 대한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남성들의 평가는 사진 속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남성들은 사진 속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매력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화장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eberge와 Kernaleguen(1979)⁶⁾는 자아의 측면과 관련된 화장품의 중요성을 연구한 결과 신체와 얼굴에 대한 만족도는 화장품의 중요성과 사용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신체와 얼굴에 만족할수록 화장품의 중요성이 높고 화장품 사용량이 많고, 신체에 만족할수록 화장품 의존도가 높았다.

Cash, Rissi와 Chapman(1985)⁷⁾은 화장품 사용량,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통제 의 소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좀더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고, 성역할 정체감이 좀 더 여성주의자이고, 성취성공에 대하여 내적통제를 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화장품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2) 화장의 유무

Hamid(1972)⁸⁾는 화장과 안경착용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4종류의 자극물 즉 화장을 하고 안경을 쓴 경우, 화장을 하고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경우,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쓰지 않게 하여 남녀 피험자들에게 매력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각 자극물에 대한 지각정도의 차이가 컸으며, 화장을 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자극물을 화장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자극물에 비하여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Graham과 Jouhar(1981)⁹⁾는 화장품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화장과 머리 손질 유무를 적용한 4종류의 자극물을 조작하여 남녀 각 16명씩 피험자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에 대한 이미지 지각에서 성별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는 화장을 하지 않은 자극물에

대하여 비사회적이며 지루한 이미지를 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화장한 얼굴은 여성을 안정적이며 사회적이고 신념있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외모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고 하였다. 즉 화장품의 사용은 외모와 성격에 있어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Graham과 Furnham(1981)¹⁰⁾은 화장과 헤어스타일 조건을 조작한 20대 여성에 대해서 28세부터 41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연구에 의하면 화장을 하면 더 여성스럽고 신체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성숙하게 보여지며, 또한 성실하고 사교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되고 있다.

Osborn(1996)¹¹⁾은 신체적 매력 판단에 있어서 화장과 자세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화장을 한 경우 밝고,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덜 정숙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6개의 색채화장 트렌드(내추럴, 로맨틱, 고저스, 업 투 데이트, 클래식, 베이직)에 대한 얼굴 이미지 지각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는 베이직 화장은 다른 트렌드에 비해 매력있고 정숙하고 여성적이고 어려보이고 암전하게 지각하는 반면 섹시하지 않고 평범하고 보수적이고 점잖은 이미지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3) 화장의 정도

Workman과 Johnson(1991)¹³⁾은 평균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에게 실시한 화장의 정도를 조작한 3단계 즉,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중간정도 화장, 진하게 한 화장의 여성의 사진을 찍어 여대생에게 매력, 여성성, 개인적 특성, 성격 및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개인적 특성과 성격특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품 사용은 매력, 여성성과 도덕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어, 화장품의 사용은 매력과 여성다움의 인식이 증가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저하되었다.

Workman과 Johnson(1991)¹⁴⁾은 화장의 정도(진한 화장, 중간정도의 화장, 화장을 하지 않은)가 성희롱을 유발시킬 가능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한

게 화장을 한 모델은 중간정도의 화장한 모델보다, 중간정도의 화장을 한 모델은 화장을 하지 않은 모델보다 성희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모델을 좀더 자극적이고 성희롱 대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윤소영(2001)¹⁵⁾은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중간정도의 메이크업, 진한 메이크업의 단계별 메이크업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경우는 품위성과 호의성이 높았고,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세련성과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현희(2001)¹⁶⁾는 화장행동을 흥미성, 예의성, 화장만족도, 심미성, 유행성, 동조성의 6개의 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화장을 할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 피부관리도 많이 하였다²⁷⁾.

이상에서 볼 때 화장은 외모와 신체적 매력과 여성다움을 증가시키고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개선시키며, 화장은 얼굴 이미지 지각, 인상형성과 성격 판단의 단서로서 영향을 주어 화장을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사교적이고 자신감이 있게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더 여성스럽고, 여성주의자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또한 화장은 전형적인 여성적 직업과 관련이 있어 성역할의 원형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 (1) 화장행동의 차원을 밝힌다.
- (2) 성역할정체감과 화장행동과의 관계를 밝힌다.
-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 (4)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 정체감이 화장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 (5) 인구통계적 변인, 성역할 정체감, 화장행동이 화장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념적-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성역할 정체감

한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의식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보유하고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양성성 유형: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상황에 따라 남성의 도구적, 행위 주체적 역할과 여성의 표현적, 친교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남성성 유형: 전통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여성성 유형: 전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 특성을 반영하는 하는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을 의미한다.

미분화 유형: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의 특성 중 어느 한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불분명한 특성을 의미한다.

(2) 화장행동

화장행동은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개인의 태도, 관심, 습관 및 화장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매력성: 화장에 있어서 성적 매력성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화장을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심미성: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심리적 의존성: 화장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행동을 말한다.

화장관심: 화장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2 측정도구 및 절차

1)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영(1987)²⁵⁾이

번안하여 사용한 Bem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Chung(1983)의 연구에서 사용한 Short Form BSRI(Bem Sex Role Inventory)였다. 남성성, 여성성 각각 10개씩의 문항에 10개의 중성 문항을 포함시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7점을 주고 7단계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남성성 척도 문항과 여성성 척도 문항을 합하여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네 유형을 분류하였다.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의 중앙치를 알아본 결과 각각 4.417, 4.875였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양성성 유형,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면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남성성 유형이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여성성 유형, 두 점수가 모두 각각 중앙치 이하이면 양성적 성격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미분화 유형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미분화의 비율이 32.7%(5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성성 (44명, 27.3%), 여성성(34명, 20.9), 남성성 (31명, 19.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분화의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 확고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성성의 비율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화장행동

화장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¹⁶⁾²⁷⁾²⁸⁾에서 추출한 문항과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합하여 총 20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고 5단계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3) 화장 정도와 화장 만족

화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하게 화장하는 정도를 조사하였고, 화장만족은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고 5단계 likert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한달 용돈, 월평균 소득과 사회계층을 조사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안산공과대학의 뷰티디자인학과 여대생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구 분	내 용	n (%)
연 령	18~19세	64 (39.5)
	20~21세	67 (41.4)
	22~23세	20 (12.4)
	24~25세	11 (6.7)
	계	162 (100.0)
사회 계층	상류층	13 (8.0)
	중류층	77 (47.5)
	하류층	72 (44.5)
	계	162 (100.0)
소 득	150만원 미만	23 (14.2)
	150~200만원 미만	30 (18.5)
	200~300만원 미만	61 (37.6)
	300~400만원 미만	26 (16.0)
	400~500만원 미만	13 (8.0)
	500만원 이상	9 (5.5)
계	162 (100.0)	
용 돈	10만원 미만	26 (16.0)
	10~20만원 미만	63 (38.9)
	20~30만원 미만	47 (29.1)
	30~40만원 미만	15 (9.3)
	40만원 이상	11 (6.7)
계	162 (100.0)	

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조사시기는 2001년 11월 ~12월이었다. 총 22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20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16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21세가 41.4%, 18~19세는 39.5%를 차지하였고, 소득은 200~300만원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다. 사회계층은 중류층이 47.5%, 하류층이 44.5%를 차지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PC⁺의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요인분석과 Cronbach의 α 신뢰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화장 행동의 요인분석

화장행동의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별 고유치를 조사하여 Kaiser의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하였다. 그 결과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묶이

<표 2> 화장행동의 요인분석

단위: 명(%)

요인1. 성적 매력성	요인부하량
이성을 만나는데 있어 화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79
데이트가 있을 때는 화장에 더욱 신경을 쓴다.	.71
나는 이성과의 모임이 있을 때는 화장에 신경을 쓴다.	.70
나는 외출해서도 거울을 자주 보며 화장에 신경을 쓴다.	.62
나는 나의 이성친구에게 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장을 하고자 한다.	.59
변량=44.2% 누적변량=44.2% 고유치=6.64	
요인2. 심미성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을 할 때 옷에 맞춰 화장하려고 노력한다.	.72
나는 나의 화장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67
나는 화장을 할 때 눈화장과 립스틱 등의 색의 조화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쓴다.	.67
나는 잡지를 주의 깊게 본 후 화장법에 따라하거나 응용할 때가 있다.	.52
변량=9.4% 누적변량=53.6% 고유치=1.42	
요인3. 심리적 의존성	
화장이 내 마음에 드는 날은 기분이 좋다.	.74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화장을 한다.	.68
화장이 마음에 들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진다.	.60
변량=6.2% 누적변량=59.8% 고유치=0.92	
요인4. 화장관심	
나는 다른 사람이 화장한 것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77
나는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들의 화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편이다.	.68
나는 화장에 있어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 무엇인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R)	.56
변량=5.5% 누적변량=65.4% 고유치=0.83	

(R)은 역으로 채점한 문항

는 5문항을 제외한 15문항을 2차 요인분석하였다. Kaiser의 기준에 따라 고유치가 10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려하였으나 추출된 요인이 분산된 편이었다. 따라서 주된 공통 요인만을 묶기 위해 비교적 동질적인 문항이 군집되어있는 4개 요인을 택하여 Kaiser의 Varimax방법으로 직교회전하였고,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65.4%해당되었다.

요인1은 이성과의 테이트가 있을 때 더욱 화장에 신경을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적 매력성이라 하였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9이상으로 모두 5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2는 화장을 할 때 눈화장과 립스틱의 색의 조화나 옷에 맞춰 화장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미성이라 하였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2이상으로 모두 4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3는 화장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고 표정이 밝아지는 화장이 주는 좋은 기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리적 의존성이라 하였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60이상으로 모두 3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요인4는 화장에 대한 관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장관심이라 하였으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6이상으로 모두 3문항이 여기에 속한다.

화장행동에 대하여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사를 하였다. 요인1은 0.83, 요인2는 0.79, 요인3은 0.75, 요인4는 0.71이었다.

2.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관계

1) 성역할 정체감 성향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문항 점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은 화장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성이 높을수록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과 화장관심이 높아 이는 화장품 사용은 성역할 태도의 여성성 척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Cash, Rissi와 Chapman(1985)⁷⁾의 연구결과와

<표 3> 성역할 정체감 성향과 화장행동과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성향	여성성 성향
성적 매력성		.19**	.23**
심미성		.32***	.23**
심리적 의존성		.17**	.29***
화장관심		.25***	.20**

p< .01, *p< .001

일치하며, 화장품 사용은 여성다움, 성적 매력과 긍정적 상호관련이 있었다는 Cox와 Glick(1986)³⁾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성성이 높을수록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과 화장관심이 높아 이는 남성성의 개성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이 화장 행동에도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화장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관심의 화장행동은 어떤 정체감을 지녔든지 여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2)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상관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남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성이 높은 여대생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진하게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성이 높을수록 자신

<표 4>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정도, 화장만족과의 상관관계

화장정도, 화장만족	성역할정체감성향	남성성 성향	여성성 성향
나는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다		.15**	.02
나는 나의 화장에 대체로 만족한다		.15**	.12

**p< .01

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²⁴⁾,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심미성의 화장행동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성성 유형이 심미성을 중요시하며, 양성성 유형과 여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적인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화장의 심미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양성성은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며²⁵⁾,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화장에서의 심미성을 중요시하고 화장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성성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는 김윤정(1992)²⁶⁾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여성성 유형은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성이 높을수록 화장을 하면서 외모를 개선시켜 심리적으로 안정감, 즐거움, 자신감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의존하려는 행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시되며 실제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여자는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보다 아름다운 얼굴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한 화장은 외모의 매력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화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 화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화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인은 연령, 소득, 사회계층, 성역할 정체감 성향(남성성, 여성성)이다.

<표 6>에서 볼 때 성적 매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 성향과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5%였다. 즉 여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의 성적 매력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이성에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 해석되며, 여성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복장을 중요시하였다는 이명희(1983)²⁷⁾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화장으로서 보완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2%였다. 즉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 개성적인 성향이 화장행동에도 반영되어 눈화장과 립스틱 색에 맞춰 화장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2%였다. 이는 여성성이 높을수록 화장의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장관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과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0%였

<표 5>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화장행동의 차이

성역할정체감유형 화장행동	양성성 유형(n=44)		남성성 유형(n=31)		여성성 유형(n=34)		미분화 유형(n=53)		F
	M	SD	M	SD	M	SD	M	SD	
성적 매력성	3.85	0.76	3.48	0.78	3.64	0.73	3.51	0.81	1.92
심미성	3.66a	0.72	3.27b	0.76	3.21b	0.78	3.09b	0.66	5.40**
심리적 의존성	4.17a	0.61	3.73b	0.68	4.10a	0.69	3.78b	0.72	4.25*
화장관심	4.02	0.64	3.89	0.70	3.77	0.80	3.67	0.68	2.33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b)

〈표 6〉 화장행동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t	overall F
성적 매력성	여성성 성향 소득	.055	.269	.247	3.251*	constant = 2.580 F = 7.425** df = 2/159
		.085	-.077	-.175	-2.298*	
심미성	남성성 성향	.092	.238	.304	4.034***	constant = 2.172 F = 18.274*** df = 1/160
심리적 의존성	여성성 성향	.082	.276	.286	3.771***	constant = 2.594 F = 14.218*** df = 1/160
화장관심	남성성 성향 연령	.064	.241	.260	3.438**	constant = 3.058 F = 7.825*** df = 2/159
		.090	-.232	-.160	-2.116*	

*p< .05, **p< .01, ***p< .001 연령 : 18~19세 이면 0, 20~25세 이면 1

다. 즉 남성성이 높을수록, 18~19세 연령이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는 18~19세의 연령은 대학이 갓 입학하여 화장에 입문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화장의 심미성과 화장 관심은 남성성에 영향을 받아 개성적인 남성성 성향이 화장행동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적 매력성과 심리적 의존성은 여성성에 영향을 받아 여성적인 성격이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성에게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서 성역할 정체감과 인구통계적 변인은 부분적으로 화장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4. 화장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화장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독립변인은 연령, 소득, 사회경제적 수준, 성역할 정체감성향(남성성, 여성성)과 4가지 화장행동(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관심)이다.

〈표 7〉에서 볼 때 화장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적 매력성과 심미성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2.1%였다. 즉 화장의 성적 매력성과 심미성을 추구할수록 화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만족은 이성에게 호감을 주는 화장을 할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에 맞는 화장을 할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화장만족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t	overall F
화장만족	성적 매력성 심미성	.179	.296	.270	3.101**	constant = 1.091 F = 22.542*** df = 2/159
		.221	.294	.256	2.940*	

***p<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고,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한 성역할 정체감이 화장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피험자는 안산공과대학의 여대생 16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 행동은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성적 매력성, 요인2는 심미성, 요인3은 심리적 의존성, 요인4는 화장관심이었다.

둘째, 성역할 정체감은 화장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성 성향과 여성성 성향이 높을수록 화장의 성적 매력성,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화장 관심이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정도와 화장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성성이 높을수록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자신의 화장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화장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성성 유형이 심미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성 유형이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적 매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 성향과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5%였다.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으로,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2%였다.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성성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82%였다. 화장관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성 성향과 연령으로,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90%였다.

넷째, 화장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적 매력성과 심미성으로,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2.1%였다.

이상에서 볼 때 화장행동은 어떤 성정체감을 지녔든지 여성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이며,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장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껏 다루어지지 않았던 화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 습관 및 화장행위를 모두 포

함하는 화장행동과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 변인으로 다루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 성역할 정체감의 화장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집대상을 서울 근교 여대생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편의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행동을 측정하는데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지역별로 유층표집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화장행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요청되며 대표적인 화장 행동 유형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화장 행동과 다른 심리적 특성 및 소비자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Bem, S. 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y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1974, pp. 155-162.
- 2) 전선정 · 안현경 · 이귀영 · 문윤경,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01, p. 15.
- 3) Cox, C. L. and Glick, W. H.,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s, 14-1, 1986, pp. 51-58.
- 4) Miller, L. C. and Cox, C. L. , For Appearance Sak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ke Up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1982, pp. 748-751.
- 5) Cash, T. F., Dawson, K., Davis, P., Bowen M. and Galumbeck, C.,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 Social Psychology, 129-3, 1989, pp. 349-355.
- 6) Theberge, L. and Kernaleguen, A., Importance of Cosmetics Related to Aspects of the Self,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8, 1979, pp. 827-830.
 - 7) Cash, T. F., Rissi, J. and Chapman, R., Not just Another Prettyface: Sex roles, Locus of Control, and Cosmetic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 1985, pp. 246-257.
 - 8) Hamid, P. N.,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1972, pp. 279-289.
 - 9) Graham, J. A. and Jouhar, A. J., The Effects of Cosmetics on Personal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1981, pp. 199-201.
 - 10) Graham, J. A. and Furnham, A., Sexual Differences in Attractiveness Rating of Day/Night Cosmetic Use, Cosmetic Technology, August, 1981, pp. 36-42.
 - 11) Osborn, D. R., Beauty is as Beauty Does? Makeup and Posture Effects on Physical Attractiveness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 1996, pp. 31-51.
 - 12) 이연희, 유행예측색에 의한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13) Workman, J. E. and Johnson, K. K. P.,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1991, pp. 63-67.
 - 14) Workman, J. E. and Johnson, K. K. P., The Role of Cosmetics in Attributions about Sexual Harassment, Sex Roles, 24, 1991, pp. 759-769.
 - 15)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 16) 김현희, 여고생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불안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 17) Block, J. M., Conceptions of Sex Roles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1973, pp. 512-526.
 - 18) Hurlock, E. B.,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McGraw- Hill, Inc., 1974, p. 311.
 - 19) Broverman, I. K., Broverman, D. M., Clarkson, F. E., Rosenkrantz, P. S. and Vogel, S. R., Sex Role Stereotypes and Clinical Judgemen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1, 1970, pp. 1-7.
 - 20) Harris, A., Ethnicity as a Determinants of Sex Role Identity :A Replication Study of Item Selection for the Bem Sex-Role Inventory, Sex Roles, 31, 1994, pp. 241-273.
 - 21) Auster, C. J. and Ohm, S. C.,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A Reevaluation Using the Bem Sex-Role Inventory, Sex Roles, 43, 2000, pp. 499-528.
 - 22) Bem, S. L.,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 for Assessing psychology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2, 1977, pp. 196-205.
 - 23) Bem, S. L. and Lenney, E., Sex -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1, 1976, pp. 48-54.
 - 24) Spence, J. T., Helmreich, R. and Stapp, J., Rating

-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ion of Mascul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1975, pp. 29-39.
- 25) 김선영,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26) 김광숙 · 조진아 · 전연숙 · 이현주, *The make up*,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1, p. 11.
- 27) 조기여,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근접도, 화장근접도와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1997.
- 28) 이명희, 예의 ·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 29) 김윤정, 남자 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